

논문접수일 : 2014.03.18

심사일 : 2014.04.05

게재확정일 : 2014.04.26

일본인의 '숲'의 가치관에 따른 'Mori-Girl' 패션 트렌드 및 조형성 분석

Analyzing 'Mori-Girl' fashion trend and formativeness depending on Japanese's
value of 'forest'

주저자 : 윤지영

성균관대학교 디자인사이언스 연구소

Yun ji-young

Design Science Institution, Sungkyunkwan University

교신저자 : 이노미

성균관대학교 디자인사이언스 연구소

Lee no-mi

Design Science Institution, Sungkyunkwan University

1. 서론

2. 모리 걸의 이론적 고찰

- 2.1. 모리 걸의 개념
- 2.2. 모리 걸의 유래
- 2.3. 모리 걸의 배경

3. 모리 걸 패션 트렌드 분석

- 3.1. 의상
- 3.2. 헤어와 메이크업
- 3.3. 신발, 가방 및 장신구

4. '숲'의 가치관에 따른 모리 걸 패션의 조형성

- 4.1. 모방을 통한 독창성과 혼종성
- 4.2. '숲'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 친화성
- 4.3. 귀여운 감성적 표현의 여성성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내추럴하고 소녀적인 이미지의 패션 표현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도 여유롭고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는 일본의 '모리 걸(Mori-Girl)' 패션에 대한 이론적 정초를 통해 모리 걸 패션 트렌드와 조형성을 밝힘으로써 모리 걸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神)들이 사는 '숲'을 경외시하는 일본 특유의 가치관이 반영된 모리 걸 패션은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여성들의 기호에 부합하여 일본의 독특한 자연관을 현대 패션에 접목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먼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모리 걸에 대한 개념과 유래, 기원 등의 연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리 걸의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 가방과 신발, 장신구와 관련된 패션 트렌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숲'의 가치관에 나타난 모리 걸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의상, 헤어, 메이크업, 가방, 신발, 장신구 등에서 모리 걸의 고유한 특징인 '숲'의 가치관에 대한 작품들을 검토하여 그 조형성을 추출한 결과, 모리 걸 패션의 조형성은 모방을 통한 독창성과 혼종성, '숲'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 친화성, 귀여운 감성적 표현의 여성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본의 모리 걸 패션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대에 나타나는 패션의 특성을 그들의 가치관과 연결시켜 분석한 독창적인 연구로써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며, 모리 걸 패션에 나타난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숲'의 가치관에 따른 새로운 조망의 조형성 분석은 모리 걸 패션의 국내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모리걸 패션, 일본 가치관, 자연친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ri-Girl fashion trends based on Japanese unique value, and to extract the formativeness of Mori-Girl fashion. It is worthy of attention example which is combined with modern fashion and Japan's unique view of nature. Mori-Girl fashion reflects the value of 'forest' and relaxed style in modern women.

We researched the concept of the Mori-Girl and identified the origin. Based on this, we examined Mori-girl's costume, hair, makeup, bags, shoes, and accessories related to fashion trends. Also we extracted the formativeness of Mori-Girl's fashion based on the value of 'forest'.

As a result, the formativeness of Mori-Girl is the uniqueness and hybridism through the imitation, the natural affinity for harmony with 'forest', and the femininity expressed for cute emotion.

It is significant and unique research for connecting the value and fashion characteristics, and it contributes to new research. This new aspect of formativeness analyzing is seeking to the turning point of perception in domestic about Mori-girl fashion and is expected to activate the theoretical discussions.

Keyword

Mori-girl fashion, Japanese values, Natural affinity

1. 서론

문화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집단적으로 이룩한 생활양식의 총체로 자연환경으로부터 상징체계에 이르는 중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환경적응의 ‘피시스(Physis)’의 체계로 부터 출발하여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는 노모스(Nomos)체계를 거쳐 종교, 예술의 상징적 기능체계인 세미오시스(Semiosis)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 시대의 패션은 인간이 축적한 이러한 여러 중첩된 단계의 문화로부터 비롯되며 그 요소들은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되므로 한 민족의 전통을 이루는 독특한 기후와 관습, 규범, 종교적 신념을 포괄한 내적 가치관은 단기간에 변할 수 없는 정신적 표상으로 대변된다. 특히 일본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간 내면적 욕구와 자연에 대한 전통의식이 표출되고 지각되며 경험되는 상징매체로서의 ‘모리 걸’ 패션은 일본인들의 ‘숲’에 대한 가치관을 구상화하여 표현한 대표적인 미의식의 소산이다. 신(神)들이 사는 ‘숲’을 경외시하는 일본 특유의 가치관이 반영된 모리 걸 패션은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여성들의 기호에 부합하여 U-tube 등의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롭기 이를 데 없으며 섬나라 일본의 독특한 자연관을 현대 패션에 접목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일찍이 뉴욕 타임즈의 패션 에디터인 에이미 스피들러(A. Spindler)가 ‘Do You Otaku?’란 제목의 칼럼에서 “세계의 진정한 패션 중심지는 뉴욕도 밀라노도 파리도 아니며 그 대안은 다름 아닌 도쿄다.”라고 천명하였듯이 도쿄는 이미 ‘패션의 메카’로 (콘텐츠비즈니스 연구회, 2010) 세계 패션을 선도하며 ‘Japanese Look’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거대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본모드의 근원이 되는 주요 가치관과 조형성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모리 걸 패션을 통해 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모리 걸 패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2010년부터 영화와 TV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모리 걸 패션이 국내에 유입되어 모리 걸 샵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리 걸 패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념적 범주와 특성을 보다 명확히 추동해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의 근원이 되는 ‘숲’에 대한 가치관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숲’과 관련된 모리 걸 패션의 조형적 표현과 특성을 정확히 통찰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본 논의는 일본의 모리 걸 패션에 대한 이론적 정초를 통해 모리 걸 패션 트렌드와 조형성을 밝힘으로써 모리 걸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의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모리 걸에 대한 개념과 유래, 기원 등의 연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모리 걸의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 가방과 신발, 장신구와 관련된 패션 트렌드를 순차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숲’의 가치관에 나타난 모리 걸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마지막 장에서 매듭지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 전문서적과 웹서핑, 모리 걸 패션 잡지에 나타난 작품 사진을 참고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최근 모리 걸 패션에 있어서 SS(Spring/Summer) 및 FW(Fall/Winter)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모리 걸 전용잡지인 일본판 「Used Mix」와 「Spoon」 2012년 5월호~2013년 12월호에 게재된 사진과 일본 모리 걸 인기 웹사이트인 ‘모리 걸(森ガール: <http://ohyeahmorigirl.com>)’ 게재된 사진 및 게시물을 선정하여 모리 걸 패션 트렌드와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사진 선정기준은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 가방, 신발, 장신구 등에서 모리 걸의 고유한 특질인 ‘숲’의 가치관에 대한 조형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검토하여 추출하였다. 이러한 모리 걸 패션에 나타난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숲’의 가치관에 따른 새로운 조망의 조형성 분석은 모리 걸 패션의 국내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모리 걸의 이론적 고찰

2.1. 모리 걸의 개념

모리 걸(森ガール)은 ‘숲(森)’을 뜻하는 ‘모리’에 ‘소녀’를 뜻하는 영어 ‘걸(girl)’이 합성되어 ‘숲에 있을 것 같은 여자아이(forest girl)’라는 뜻의 신조어이다.(한국경제신문, 2010). 2006년 일본 SNS인 ‘Mixi’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모리 걸은 ‘사소한 일상에서 편안하면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소녀적 취향’을 의미하는 환상적인 개념으로 실제 ‘숲’에서의 활동을 지향하지는 않는 용어이다. 예컨대 카페 탐방과 독서, 수예, 사진 찍기, 산책 등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여(日本經濟新聞, 2009)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를 즐기는 모리 걸의 성향은 특히 패션 디자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양식	주요 가치	패션 스타일
보헤미안 룩	- 전원성 - 민속성 - 장식성	
히피 룩	- 에콜로지 - 사이키델릭 - 에스닉 - 노스텔지어 - 유니섹스	
모리 걸 룩	- 자연주의 - 혼종화 - 장식미	

[표 1] 보헤미안 룩과 히피 룩의 특성 및 차이점

한편 전체적으로 헐렁한 분위기에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layered) 스타일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리 걸 패션은 전원적 스타일의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보헤미안 룩(Bohemian Look) 혹은 히피 룩(Hippie Look)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는 방랑자(vagabond)들의 성향을 추구하는 보헤미안 룩은 ‘messy’를 바탕으로 빨강과 파랑, 노랑, 분홍, 녹색등의 원색적이며 어둡고 강렬한 색상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김혜인, 2009) 밝고 채도가 낮은 색상의 모리 걸 패션과 차이가 있다. 반면 1960년대 후반 물질문명과 소비주의, 상업주의, 고도의 기술주의에 대한 환멸에 의해 반문화의 원형으로 시작된 히피 룩은(이수인, 박길순, 1999)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갈망함으로써 전원풍의 집시의상을 착용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관점의 모리 걸 패션과 유사하다. 그러나 히피 룩은 현재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쾌락주의에 의해 영등이는 꼭 맞으면서 바지 끝이 넓게 퍼지는 판탈롱 바지와 끝이 풀어진 청바지, 길이가 긴 케이프, 술 장식의 베스트, 체인벨트와 굵이 높은 긴 부츠 등 자극적 패턴과 사이키델릭 아트(psychedelic art)의 유니섹스 스타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모리 걸 패션은 개념적으로는 자연친화적, 내추럴, 복고적, 레이어드, 빈티지의 보헤미안 룩·히피룩과 유사하지만 보헤미안 정신과 히피정신의 자연주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이들보다는 좀 더 몽환적이

며 귀여운 느낌이 강한 밝고 소녀적인 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타일에 있어서도 슬림과 롱(Slim & Long)을 추구하는 보헤미안 룩이나 히피룩과 달리 모리 걸 패션은 전체적으로 몸매를 드러내지 않는 풍성한 스타일이라는 차이가 있다. 결국 모리 걸 패션은 “자연을 사랑하여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귀여운 소녀 감성을 지닌 패션 ‘이라 정의할 수 있다.

2.2. 모리 걸의 유래

모리 걸은 일본 SNS ‘미쿠시이(Mixi)’의 모리 걸 커뮤니티 관리자가 친구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숲에 있을 것 같은 모습”이라고 언급한데서 유래한 용어이다.(日本經濟新聞, 2009) 2006년 8월에 개설된 이 커뮤니티가 10대에서부터 30대 계층의 젊은 여성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화제가 되자 대중매체에서 ‘모리 걸’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9년 2월 14일 일본의 유명 패션잡지인 「Spoon(角川書店)」이 별책부록으로 「모리 걸 A to Z(森ガール A to Z)」를 발행하자 뒤 이어 「FUDGE(ニューズ出版)」, 「Valon(辰巳出版)」, 「Papier(アスキー・メディアワークス)」, 「森ガール Lesson(宝島社)」 등의 다양한 모리 걸 전문패션 잡지가 탄생함으로써 모리 걸 패션의 부흥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에서는 모리 걸 패션의 전형을 2006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허니와 클로버(ハチミとクローバー: Honey & Clover)’의 주인공을 맡았던 여배우 아오이 유우(蒼井優)의 패션 스타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영화에서 천재 미술가로 등장한 아오이는 밤색과 진녹색, 남색 등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의 배합은 물론 알록달록한 티셔츠 위에 원피스와 풍성한 블라우스를 아무렇게나 걸쳐 입을 듯한 패션으로 젊은 여성들을 열광시켰다(서울신문, 2011).

이처럼 영화, 잡지 등의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부각된 모리 걸 패션은 골동품과 구제품 등의 빈티지 샵이 몰려 있는 도쿄의 고엔지(高円寺)와 시모키타자와(下北沢), 다이칸야마(代官山)에서 스트리트 패션으로 부터 출발하여 점차 최첨단 패션의 중심거리인 하라주쿠(原宿)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일본전역으로 확산되어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日本經濟新聞, 2009)

2.3. 모리 걸의 배경

복식 조형은 특정지역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

단면을 표출하는 수단으로(Elizabeth Ewing, 1987) 인간은 동질한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복식 조형을 창출하여 인식, 해석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을 축적한다. 즉 복식조형은 인간의 내면적 사상과 가치관이 구상화되어 미적으로 표현된 결과인 것이다. 가치관은 ‘복잡하지만 명확하게 체계화된 인간행동과 사고의 판단을 부여하는 원리로 인지적(문화에 대한 견해와 사고방식), 정서적(감성), 정서적(기호) 요소로 구성되는 집단 구성원의 인식체계’를 일컫는다. 특히 복식조형에서의 가치관은 인간의 미적욕구를 표현하는 문화유형의 기초로 그 지역 특유의 고유문화와 담합하여 패션 스타일을 선도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모리 겐 패션 또한 일본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숲’에 대한 가치관을 전형적으로 표출한다. 전체 국토의 66%가 숲으로 뒤덮인 섬나라로 역사적으로 약 1만여 년간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도 없이 원시림에 파묻혀 있던 일본인들에게 거대한 생명체를 지닌 ‘숲’은 신(神)들이 머무는 ‘신성한 숭배의 공간’이자 일본인 자신의 ‘정체성의 공간’인 까닭이다(이노미, 2012).

일본인들이 이처럼 ‘숲’에 의존하며 숲을 귀여 여기는 이유는 지진과 해일, 태풍 등의 불안정한 자연환경 때문이라는 이중적 모순점이 내재한다. 사시사철 천재지변의 재앙 속에서 혹독한 자연환경을 결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일본인들은 ‘숲’을 비롯한 모든 자연과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여겨 자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만물의 정령이 사는 ‘숲’을 통해 자연과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일본인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숲’은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부식(副食)과 목재를 제공하는 풍부한 자연의 보고로써 삶의 터전이자 태풍과 지진의 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평화의 공간인 동시에 신이 깃든 나무가 자리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신사(神社)와 사찰, 서원(書院) 주변에는 항상 숲이 에워싸고 있으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친쥬신(鎮守神)을 모신 곳을 ‘친쥬의 숲’이라 부르며 신성시한다(박규태, 2005).

이러한 연유로 인간을 ‘숲’의 일부로 파악한 일본인들에게 ‘숲’은 소외와 고통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정신적 안식처로 인간의 구원이 ‘숲’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식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이노미, 2012) 아울러 일본 환경청에서 발간한 『환경백서(環境白書)』에서 ‘인간과 자연을 일체화시킨 자연관을 통해 일본의 독자적인 생활양식과 문화가 배

양’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듯이(環境序編, 1996) ‘모리 겐’ 패션 역시 이러한 일본인들의 심층구조에 자리한 오랜 ‘숲’의 가치관이 복식양식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학과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조류에 의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일본인들의 심리가 ‘숲’에 대한 인식으로 강화되면서(최해주, 안은경, 2003) ‘모리 겐’ 패션이 창출된 것이다.

결국 모리 겐 패션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팽배한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의 탐욕적 욕망에 대한 자각이 ‘숲’의 순수한 가치를 통해 정신적 안식과 구원을 얻고자한 갈망으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를 자각한 개인들이 기존의 유명 브랜드나 유행을 추종하기 보다는 대중과 동질화되지 않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순수한 가치를 표현함으로써(http://mixi.jp)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체이자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3. 모리 겐 패션 트렌드 분석

3.1. 의상

모리 겐 패션의 핵심은 ‘숲’ 속에 있는 소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복식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형태와 색채, 소재에서 현저한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인 형태는 바디 라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무릎 아래 길이의 풍성한 롱 원피스나 롱 스커트의 A 라인을 바탕으로 판초나 볼레로 등의 여러 가지 아이템을 겹친 레이어드를 통해 부드럽고 느슨한 실루엣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추구하는 동시에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한 내추럴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의 청순하고 귀여운 여성의 분위기를 연출한다(日本經濟新聞, 2009). 레이스나 러플(ruffle), 프릴(frill)의 장식 주름의 디테일이 들어간 블라우스나 스커트는 여성성을 강조하면서도 뚜렷한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형태				

색채								
소재	면, 린넨, 울, 니트, 퍼							
표현기법	플라워				물방울			

[표 2] 모리 걸 패션 각 구성요소의 특성

한편 모리 걸 패션의 대표적인 색상은 화이트, 베이지, 핑크, 브라운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주의적 색상인 그린과 블루 등이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 유사한 파스텔 계열 색상이나 혹은 탈색된 듯한 빈티지 컬러를 레이어드하는데 이는 여러 다양한 소품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색감으로 유용하다. 또한 은은한 파스텔 색상의 잔잔한 플라워 문양과 물방울, 체크 등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의 반복 패턴을 이용하여 화사한 분위기의 자연친화적 문양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모리 걸 패션은 코튼과 린넨, 울, 니트, 퍼와 같이 부드럽고 가벼운 자연소재를 살려 화학섬유와 딱딱한 질감의 소재는 극히 제한된다.

이처럼 모리 걸 패션은 내추럴하고 빈티지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천연소재의 질감과 색상, 문양의 레이어드 기법을 주로 활용하는 특성을 지닌다.

3.2. 헤어와 메이크업

모리 걸 패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헤어 스타일은 브레이드 헤어(Braid hair)와 웨이브, 곱슬곱슬한 컬, 숏 뱅 등 부드러운 머릿결이 자연스럽게 흘날리는 로맨틱한 스타일이 선호된다. 헤어 장식은 꽃과 나뭇가지, 나뭇잎, 레이스 등을 활용해 청초한 느낌의 사슴이나 혹은 숲 속의 전령 같은 이미지로 표현된다.

컬러			
메이크업			

형태	내추럴 웨이브	
장식	플라워	자연소재

[표 3] 모리 걸 헤어와 메이크업

꾸미지 않은 내추럴한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메이크업 또한 소녀스러움을 극대화하는 화장법으로 청순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모리 걸 메이크업에서는 컨실러와 입술용 화장품, 볼터치가 주로 사용된다. 피부 표현은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 가리기보다는 최소한의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로 본래의 자연스러운 피부를 그대로 살리고 주근깨도 살짝 드러내어 내추럴을 강조한다. 입술은 본인의 입술 색과 가장 유사한 컬러나 보습제만 바른다. 색조화장은 강한 색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핑크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볼 중앙의 광대뼈 주위를 동글리듯 볼터치만을 강조한다.(서울신문, 2011) 진하지 않은 눈 화장에 볼을 발그스레하게 물들이는 치크(cheeks) 메이크업은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모리 걸의 분위기를 배가시켜 몽환적이고 귀여운 느낌을 자아내는 로맨틱한 소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손톱 또한 길고 화려한 네일보다는 짧고 수수한 네일을 연출한다.

3.3. 신발, 가방 및 장신구

모리 걸 패션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숲 속을 편안히 거닐 것 같은 자연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신발은 부담스러운 하이힐 보다는 굽이 없는 플랫이나 앞코가 둥근 스타일의 클로그(clog), 혹은 미디엄 부츠(medium boots)와 헐렁한 운동화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즐긴다. 때때로 스트라이프나 도트, 플라워 패턴이 있는 부드러운 타이즈와 레깅스, 양말을 함께 코디네이터 한다.

모리 걸 패션에서의 가방은 가죽이나 코튼, 우드, 밀짚 등 천연소재를 활용해 만든 빈티지 스타일의 레더 사첼(Leather Satchel)과 포세트(pochette)등의 작은 사이즈가 애용되며 종종 나무로 만들어진 가방과 바구니 가방도 사용된다. 밀짚가방은 레이스, 꽃, 스카프로 복잡한 장식이 함께 곁들여지는 특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숲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엉이와 별새, 물총새 등 조류나 동물 형상을 차용한 독특한 형태의 가방이 뚜렷한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표 4] 자연친화적 스타일의 모리 걸 패션 소품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모리 걸들은 다양한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대부분 숲과 관련한 소품의 나비와 버섯, 나뭇잎, 동물의 뼈 등 천연소재를 활용한 귀여운 스타일의 핸드 메이드 장신구를 애용한다. 옷에 달리는 단추 또한 입체적인 느낌의 장식 단추를 선호하며 목걸이는 커다란 크기가 주류를 이루어 차가운 느낌의 실버보다는 따뜻한 느낌의 골드 소재를 주로 착용한다. 특히 밀짚모자와 워머, 털목도리와 귀마개 등의 독특한 소품은 물론 때로는 옷에 꽃을 장식함으로써 모리 걸 패션을 완성하는데 이러한 소품의 대부분은 자연친화적인 북유럽에서 유래한 스타일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読売新聞,2009).

4. ‘숲’의 가치관에 의한 모리 걸 패션의 조형성

4.1. 모방을 통한 독창성과 혼종성

에이미 스피들러(A. Spindler)가 ‘도쿄는 패션의

흐름에 반응하는 빠른 속도와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패션에 대한 놀라운 열정, 무엇보다 동·서양의 패션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콘텐츠비즈니스 연구회, 2010) 언설한 바와 같이 모리 걸 패션 또한 동·서양 북식문화의 이질감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모리 걸의 명칭 자체가 영어와 일본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리 걸 패션은 서구의 자연주의 패션인 보헤미안 룩과 히피 룩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내추럴하고 빈티지한 이미지를 비롯하여 패치워크와 아플리케 방식, 자수 및 비즈와 같은 수공예 장식요소에 있어 북유럽 스타일의 노르딕 문양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러한 서구의 패션을 전적으로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 여성 특유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스타일의 걸리쉬 룩(girlish look)을 함께 혼성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스타일의 모리 걸 패션을 창출해내었다.

굳이 레비스트로스(Levi Strauss)가 ‘세계에 있어 일본문화의 위치와 역할이 다름 아닌 차용과 통합, 독창과 혼합의 반복’이라고(Levi Strauss, 1988)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예로부터 선진문화의 수용과 혼성을 통해 ‘모방을 통한 창조’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가치를 가토 슈이치(加藤周一)는 ‘잡종문화론’이라 일컬으며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정신적 잡거성’으로(丸山眞男, 1998) 규정하고 있다.

모방을 통한 독창성과 혼종성은 모리 걸 패션의 근원이 되는 ‘숲’의 가치관에서 발원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숲 속의 다양한 생물들을 지켜보면서 동종 교배의 순종은 순수하지만 덧없이 나약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잡종강세의 혼종성을 숲을 통해 터득하였던 것이다(이노미, 2012). 더욱이 ‘잡종’과 ‘순종’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잡종강세가 지속된다는 ‘숲’의 진리를 통해 ‘좋은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이이도코리(良いとこ取り)’ 정신과 ‘남에게 배우고 배우면서 배운 것을 파괴하고 결국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수(守)·파(破)·리(離)’의 규범을 계승하였다.



				
형태	레이어드			
문양	에스닉			
	패치워크			
	노르딕			

[표 5] 모리 걸 패션의 혼종적 특성

경제학자 네이션 로젠버그(Nathan Rosenberg)가 일본을 ‘모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창조적 모방가의 DNA를 가진 국가’라고 표명하였듯이(매일경제, 2010) 일본인들은 서구 복식문화의 이미지를 차용·복제하여 일본 토양에 맞게 모리 걸 패션으로 새롭게 조합해내었다. 아울러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스타일과 소재, 디테일, 장식들을 다양하게 레이어드하고 매치한 혼종성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를테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브라우스와 조끼, 긴 스커트와 니트, 머플러, 귀마개 등을 겹겹이 겹쳐 레이어드하는 것은 물론 거칠고 투박한 가죽 부츠에 우아한 분위기의 레이스 장식을 덧대거나 코튼 워머에 털을 부착함으로써 이질적인 소재들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독특한 조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무형식의 상태로 대칭을 벗어난 비구조적인 모리 걸 패션의 이러한 독창성과 혼종성은 모리 걸 패션에 특별한 개성을 결정짓는 주요요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세계 패션이 신속하게 모방 생산되어 동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모리 걸 패션이 일본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4.2. ‘숲’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 친화성

모리 걸이 ‘숲의 소녀’를 상징하는 바와 같이 모리 걸 패션에는 ‘숲’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연과 동화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본인의 자연친화적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

모리 걸 패션의 자연친화적 이미지는 과장되게 속박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의 여유로운 풍성한 실루엣과 면, 마, 모 등 천연소재의 활용은 물론 꽃과 나무, 새, 나비 등의 동·식물을 모티브로 한 자연스럽고 다양한 문양 핸드 메이드 장식품으로 구성된다(日本經濟新聞, 2010). 또한 색채에 있어 땅과 하늘, 나무와 바위, 물빛에서 드러난 화이트, 베이지, 블루, 그린 등 에크루(ecru)와 같이 가공되지 않는 색상과 빛이 바래 퇴색한 듯한 저명도와 저채도의 색상을 통해 자연의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리 걸 패션은 ‘숲’과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일본인들은 ‘숲’의 돌과 나무, 물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어울려지듯 인간과 자연 또한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것을 당위적인 자연의 섭리로 인식하고 있다(Martin J. Gannon, 2003). 일본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일본 국가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신일본양식(Japanesque modern)’에서도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 생각하고 자연과 공존하고 조화하는 속에 미를 느끼고 감성을 배양하는 자연관이 일본 전통문화의 근저에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ネオジャパネスクブランド推進懇談会, 2005)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숲’을 단지 물질적인 대상이 아닌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구심체로 파악하여 ‘숲’과 혼연히 융화되는 가치관을 지향한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숲’에서 느끼는 소박하면서도 정적인 상태의 미적관념을 ‘와비(わび)’와 ‘사비(さび)’로 승화하였으며 지나치게 장식적이거나 조형적, 기교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과 대립하지 않은 채 숲에서 그윽하고 한적한 풍취를 즐기는 순수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모리 걸 패션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4.3. 귀여운 감성적 표현의 여성성

순수한 소녀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감성적 스타일의 모리 걸 패션은 다양한 플라워 장식과 러플, 레이스, 퍼 장식을 활용하여 귀엽고 사랑스런 소녀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 모두는 청순한 소녀에 대한 영원한 동경이 있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에 기초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미적 감각은 우주의 영

구적 변화인 중생유전(衆生流轉)의 무상(無常)에서 비롯된다. 일본에서의 무상이라는 불교적 개념은 자아의 연장으로 ‘숲’의 가치관 속에 함께 융화되어 있다. 이 융합은 자연과의 일체성 속에서 그리고 삼라만상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숲’에서 발견된다(Martin J. Gannon, 2003). 즉 ‘숲’은 자연의 진수를 담고 있지만 계절은 ‘숲’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결국 모든 생명체들은 숲에서 죽음을 맞고 소멸되어 버린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인생의 유한성과 사물의 본질에 대한 정서적 감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부이(しづい)’와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はれ)’의 미학을 추구한다.

로니 레셈(Ronnie Lessem)의 저서『글로벌 비즈니스(The Global Business)』에 의하면 ‘시부이’는 평온함을 주는 아름다움으로 대상의 완성과 자연스러움, 순수함 그리고 부드러운 색상을 통해 보여지는 미의식이며 ‘모노노아와레’는 인간이 사물과 자연의 유한성을 깨달으면서 대상과 혼연일체가 되어 촉발되는 정서라고 일컫고 있다.(Ronnie, 1987) 반면 일본의 대표적 국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표현을 빌자면 ‘모노노아와레’는 일본의 ‘순수한 혼’으로 여겨지는 감정으로 대변된다(정혜선, 2008).

이 같은 미적 깨달음은 ‘숲’에서 발견된 인간과 자연의 감성에 의한 것으로 일본인들은 화려하게 피었다 바람에 스러지는 사쿠라 꽃잎에서 느껴지는 무상감을 통해 시간을 정지시키고자 한다. ‘숲’의 생명체는 비애의 정조로 사라지지만 ‘숲’속의 돌과 물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임을 연약하고 덧없는 순수한 정념을 통해 깨닫게 됨으로써 일본 여성들은 특유의 회고적 감성에 의한 탐미의식을 모리 걸 패션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즉 모리 걸 패션은 숲 속에서 유연하게 흐르는 물과 화려한 꽃이 피고 지는 무상의 시간을 멈추어 가련하고 순수한 감성의 귀여운 소녀 이미지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추구하는 일본 여성성의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모리 걸 패션이 널리 퍼진 것이 거품 경제 몰락으로 일본 여성들의 삶이 궁핍해진 2000년대 이후였음을 주목해볼 때 일본 여성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노스텔지어의 그리움을 자아내는 소녀 이미지의 몽환적 환상에 대한 갈망을 허구의 바탕 위에 놓여진 무시간성을 통해 표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지켜주지 않으면 금세 부서질지 모를 정도로 취약하고 덧없는 소녀적 이미지는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사랑스럽고 귀여운 ‘가와이이’의 현상적 미학과 동반되어(요모타 이누히코, 2013) 귀여

운 모리 걸 패션의 독특한 여성성을 발현시켰던 것이다. 모리 걸의 소녀 취향의 여성성은 숲의 가치관을 통한 ‘시부이’와 ‘모노노아와레’의 미학적 관념 속에서 현실적 문제가 억압되고 부정되어 나타남으로써 여성들은 모리 걸 패션의 미학이 유포하는 행복감과 쾌락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토피아적 몽상의 여성성이 거듭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숲’의 가치관에 의해 모리 걸들은 [표 6]에서와 같이 브레이드와 레이스, 애플리케, 피, 프릴, 플라운스(flounce) 등의 여성스러운 장식을 마다하지 않으며 나아가 페전트(peasant)와 플리즈(pleats) 스타일, 플라워 문양 등으로 귀여운 소녀 이미지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표 6] 모리 걸 패션에 나타난 소녀이미지의 여성성

이와 같이 일본인들의 ‘숲’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분석한 모리 걸 패션에서 나타난 조형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창성/혼종성	자연친화성	여성성
- 이질적인 소재, 스타일, 디자인을 다양하게 레이어드 -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종화	- 천연소재, 자연친화적 모티브 사용 - 땅, 하늘, 나무, 바위, 물을 나타내는 가공되지 않은 저명도, 저채도 색상 사용	- 귀엽고 순수함을 강조하는 일본인의 미의식 반영 - 레이스, 프릴, 플라워 무늬, 애플리케 등으로 여성적 이미지 강조

[표 7] 모리 걸 패션에서 나타난 조형성

5.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연주의적 성향의 모리 걸 패션은 물질만능주의와 환경오염,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도시생활의 삭막함과 답답함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일본 여성들의 심리가 평온하고 여유로운 ‘숲’에 대한 동경과 일본 특유의 자연관인 ‘숲’의 가치관이 어울려져 21세기에 새롭게 창출된 복식문화이다.

모리 걸 패션은 일본 국내에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인기가 확산되어 영 어덜트 계층까지 확장됨으로써 연령과 지역의 장벽까지 허물어 나아가고 있다. 세계 각지의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이 된 모리 걸 패션이 국내에 안착한 것은 2010년 TV 드라마 ‘메리는 외박 중’에 등장한 한 여배우에 의해서이다. 사랑스런 말괄량이 여성으로 분한 배우 문근영은 긴 웨이브 머리에 큼직한 가디건이나 코트에 티셔츠를 이너웨어로 활용하고 롱스커트나 플라워 프린트 스커트로 지금까지 살펴 본 모리 걸 패션 트렌드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일본의 모리 걸 패션을 일본인의 가치관과 연결시켜 모리 걸 패션에서 나타나는 조형성을 추출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패션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자연주의에 대한 패션 디자인의 미적 보편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숲’의 가치관을 통한 ‘자연 친화적’이며 ‘모방을 통한 독창성과 혼종성’, ‘귀여운 감성적 표현의 여성성’과 같은 특수성을 확산시켜 도교를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부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유의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의 여성성을 담고 있는 모리 걸 패션은 일본 여성들을 수동적이고 정적이며 소녀 감성의 왜곡된 여성상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소녀적 유치함과 왜곡된 현실감각을 조장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리 걸 패션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함은 물론 나아가 세계로 도약하는 일본 패션 디자인의 세계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체화시킨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패션 디자인의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수 (2010.05.20). 창조적 모방가 ‘Imovator’가 돼라, 「매일경제」.
- 김혜인 (2009). 「보헤미안 이미지에 따른 헤어스타

-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규태 (2005). 『아마테리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 서울 : 책세상.
- 윤창수 (2011.01.08). 자유로운 히피정신 무장 ‘모리 걸’ 뜬다. 「서울신문」.
- 이노미 (2012). 하이브리드 문화의 원천과 전승 양상. 『인문과학』, 49, 141-164
- 이수인·박길순 (1999).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1, 567-577.
- 이유경 (2010. 06.17). 숲에 있을 것 같은 ‘모리걸’패션을 아시나요?. 「한국경제신문」.
- 정혜선 (2008). 『한국인의 일본사』. 서울 : 현암사.
- 최신애 (2010, 12.09). 따도너’ 문근영, 알고 보니 ‘모리걸’. 「머니투데이」.
- 최신애 (2010.08.09). 초식남의 여자친구는 ‘모리걸’?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리걸 패션. 「머니투데이」.
- 최해주·안은경(2003). 국내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3(2), 137-151.
- 콘텐츠비즈니스 연구회 (2010). 『하루키, 키티, Muji를 통해 본 일본의 문화 아이콘』. 서울 :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 丸山眞男 (1992). 日本の思想 .김석근 역(1999). 『일본의 사상』. 서울 : 한길사.
- 四方田犬彦 (2007). かわいい論, 장영권 역(2013). 『가와이이 제국, 일본』. 서울 : 펜타그램.
- 環境序編 (1996). 『平成8年 環境白書』, 東京:環境廳.
- ネオジャパネスク・ブランド推進懇談會 (2005. 7).
- 森ガール”って何?そのスタイル、行動パターンとは (2009.05.22). 「日本經濟新聞」.
- 大阪の 森ガール フワフワ重ね着 (2009.11.11) 「讀賣新聞」.
- 森ガール にも芯がある、自然っぽく、自分らしく (2010.01.23). 「日本經濟新聞」.
- Martin J. Gannon (2001). Understanding Global Cultures: Metaphorical Journeys Through 23 Nations. 박기순 외 역 (2003). 『세계문화이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Elizabeth Ewing (1987).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T. Batsford Ltd.
- Ronnie Lessem (1987). The Global Business, New Jersey: Prentice-Hall.
- Levi Strauss (1988). 混合と獨創の文化, 『中央公論』, 5.
- MiXi (2014.01.15). <http://mixi.jp>.
- Usedmix (2014.01.20). <http://usedmix.net>.
- Spoon (2014.02.01). <http://www.spoon01.com>.